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스마트TV 영상 TV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형 디바이스 등 거실 정원을 위한 다양한 TV 관련 제품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구글의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왼쪽)와 KT의 UHD 셋톱박스.

# 꽃기만 하면 일반 TV가 스마트TV로 변신!

## 구글 '크롬캐스트' 출시

스마트폰 영상을 TV로 즐길 수 있어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 기기도 호환

## 올레tv 'UHD TV 셋톱박스' 공개

UHD TV 기능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6월 초 시범서비스 후 하반기 상용화

'거실 전쟁'이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소비를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특히 화질과 편의성에 초점을 둔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초고화질(UHD) 방송을 볼 수 있는 셋톱박스를 선보이려는 일반TV를 간편하게 스

마트TV로 바꿔주는 소형 디바이스까지 등장했다.

### ●스마트폰의 영상을 TV로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스마트폰 등의 영상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디바이스다. 대표적인 제품은 구글의 크롬캐스트. 구글코리아는 14일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의 온라인 콘텐츠를 TV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를 4만9900원에 국내 출시했다. 구글플레이를 포함해 롯데하이마트, G마켓, 옥션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콘텐츠 파트너는 '티빙'과 '호핀'이다.

크롬캐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설치 과정이나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HDMI 포트가 있는 TV에 꽃고 인터넷에 연결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서

보던 영화와 유튜브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크기도 엄지손가락만 해 휴대성이 뛰어나다.

크롬캐스트는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아이패드와도 연결 가능하다. PC환경에서는 윈도우, 맥 OS,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인터넷 방송업체 에브리온TV가 3월 '에브리온TV 캐스트'를 출시했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TV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 ●UHD 화질을 더욱 생생하게

케이블과 IPTV 등 기존 서비스들은 화질 경쟁에 나섰다. 관련 사업자들이 UHD TV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셋톱박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최근 UHD 영상 시청이 가능한 차세대 셋톱박스를 공개했다. 6월 초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경 그 규모를 확대한 뒤 올 하반기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UHD TV를 보유한 이용자는 이를 통해 기존 풀HD와 비교해 4배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셋톱박스형 UHD 서비스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형 UHD 서비스(셋톱프리)와 달리, TV 제조사나 모델,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UHD TV에서 초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앞서 지난 달 셋톱프리 UHD 서비스를 선보인 SK브로드밴드도 올 하반기 셋톱박스형 UHD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며, 케이블 업체도 삼성전자와 함께 UHD 셋톱박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 이통사 장기 영업정지에 자금제폰·공기계 웃음꽃

주요 온라인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증가

3월13일 시작된 이통통신사의 장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주요 온라인몰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USIM)만 꽂으면 사용 가능한 자금제폰과 공기계, 해외 출시폰, 알뜰폰 등이 인기를 끈 결과다.

인터파크는 최근 2개월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판매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구글의 '넥서스5'로 최근 2개월 동안 판매된 단말기의 21%를 차지했다. '베가 아이언'은 17%, '갤럭시S4 미니'가 14%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은 통신사 'CJ헬로모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도 최근 두 달 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알뜰폰과 선불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4% 급증했다. 공기계 판매는 13% 증가했다. 옥션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 공기계 제품 판매가 75% 증가했고, 공기계 중고품 판매의 경우 5% 늘었다. 김영민 기자

## 자살보험금 안준 생보사 철퇴맞나

ING "표기 실수" 핑계로 90여명만 200억 미지급 심의위, 소급지급 결론 났 생보사들 5000억 내야

약관에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놓고도 이를 무시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보험금 가입 2년 뒤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바꾸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단순 표기실수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약관과 달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제재심의위에서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적용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생보사들 역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앞서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사들은 표기상 오류라는 엉뚱한 논리를 대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상액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 골프 1.4 TSI 블루모션 사전 예약

'해치백의 교과서' 폭스바겐 골프가 가솔린 모델인 골프 1.4 TSI 블루모션 출시를 앞두고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의 큰 트렌드는 엔진 다운사이징이다. 배기량을 낮춰 친환경성을 높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이거나 유지하는 것이 핵심 기술. 골프 1.4 TSI엔진은 다운사이징 엔진의 새로운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소의 연료로 최대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구현'을 목표로 개발됐다. 1.4리터의 배기량으로 2.5리터급의 강력한 파워를 구사한다. 최고출력 140마력(4500~6000 rpm), 최대토크는 25.5kg·m/rpm(1500~3500),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4초다. 여기에 듀얼클러치 방식의 7단 DSG 변속기와 TSI 모델 최초로 에너지 회생 시스템, 스타트-스톱 기능 등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다. 공인 복합 연비는 13.5km/l.

국내에는 골프 1.4 TSI 블루모션과 골프 1.4 TSI 블루모션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각각 3220만원(1.4 TSI 블루모션)과 3630만원(1.4 TSI 블루모션 프리미엄)이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가 가솔린 모델 골프 1.4TSI 블루모션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

사진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 동국제약 '부부 트래킹 행사' 개최

25일 북한산...센시아 브랜드 사이트서 응모

"트래킹 하면서 부부사랑 확인하세요." 동국제약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센시아와 함께하는 5월 사랑 부부사랑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응모한 부부를 대상으로 총 25쌍을 선정, 25일 '북한산 트레킹' 행사에 초청한다. 이날 행사에는 트래킹과 함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특히 동국제약은 행사 사진을 모아 앨범으로 만들어 참가한 부부 모두에게 선물한다.

40대 이상 부부라면 누구나 센시아 브랜드사이트(www.censia.co.kr)를 통해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간단한 설문과정을 거쳐 응모할 수 있다. 기간은 20일까지. 당첨자는 '부부의 날'인 21일 센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표적인 성인병인 정맥순환장애의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등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맥순환장애는 정맥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결합조직이 약해져 발생한다. 발과 다리가 자주 저리고 붓고, 몸이 무겁고 피로해 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동국제약 센시아는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품이다. 김재혁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 @ajapto

## '한국 관광의 밤' 류현진-박찬호 LA서 만난다

27일 다저스구장서 박찬호 팬사인회·시구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에서 활약하는 류현진이 자신의 우상인 박찬호와 다저스타디움에서 만난다. 둘은 한국관광공사가 27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다저스구장에서 개최하는 '한국관광의 밤(Korea Night)' 행사에 함께 참석한다. 두 스타가 다저스구장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호는 경기 전 다저스구장의 한국 관광 부스에서 현지 팬들을 위한 사인회를 갖고 이어 시구자로 나선다. 다저스 구단도 두 한국인 스타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관중 5만명

을 대상으로 류현진의 버블헤드 증정행사를 연다. 또 메이저리그를 대표해 둘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날 '한국 관광의 밤'에는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선 경기 전 진행되는 국가 제창 때 K-Pop 그룹 씨엔블루의 멤버 정용화가 애국가를, 가수 알리가 미국 국가를 부른다. 한국관광 부스에서는 한국어 여행 상담을 진행하며 경기 중 한국방문 항공권 경품 이벤트를 연다. 구장 전광판 및 LED 화면에는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 배우 김지원, 닥터지 새 모델로 발탁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가 신예 배우 김지원을 2014년 모델로 발탁하고 최근 브랜드 지면 광고(사진)를 촬영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의 얼굴이 된 김지원은 '상속자들', '감동' 등 최근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고교생 역할을 소화할 만큼 맑고 건강한 피부와 싱그러운 마스크로 주목받았다. 김지원은 1년간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브랜드와 함께 뷰티 전도사로 나선다. 건강한 피부 멘토를 지향하는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는 축적된 피부과의 임상 노하우와 피부 과학이 접목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다.



## 천연화장품 낫츠, FT아일랜드 팬 사인회

최근 서인영의 '스타뷰티쇼'로 화제가 된 천연화장품 낫츠가 17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인기 밴드 FT아일랜드의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 총 130명을 초대하는 FT아일랜드 사인회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별도 응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응모는 14,15일 이틀간 낫츠 홈페이지에서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한다. 오프라인 응모는 16,17일 오후 1시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낫츠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사인회 응모권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사인회 당일 오후 2시 낫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 100명을 공지한다.

편집 | 김재혁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